월요광장

21세기의 '스윙'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작년에 성공적인 초연으로 평가받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안성수 안무·연출)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재공연에 앞선 전국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종종 소수 취향의 전위적 무대가 예측되지만 '스윙'은 그러한 예상을 뒤엎었다. 스웨덴의 6인조 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가 '인 더 무드' '싱싱싱' 등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스윙재즈 곡목들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동안, 각각 남녀 두 명씩 쌍을 이룬 한국의 무용수들은 흥겨운 스윙 리듬에 맞춰 무대 위를 댄스홀처럼 누볐다.

그들의 춤 동작은 린디합, 찰스턴 등의 정통 스윙댄스보다는 전반적으로 발레 동작에 기초해 있었고 간혹 케이팝 아이돌 댄스나 비보이 댄스, 한국 고전무용의 우아한 무브먼트까지 느껴지는 정교한 안무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술무대의 현대무용과 댄스홀의 스윙댄스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태도가 엿보였다. 현대무용에서 '파격'의 무기가 역설적이게도 '대중성'인 셈이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아방가르드일까, 아니면 상업적 절충일 뿐일까?

'스윙'이라는 용어에는 이중적 함의가 들어 있다. '스윙'은 한편으로 재즈 음악 일반에 필수불가결한 양식적·리듬적 요소를 가리킨다. 이때 말하는 '스윙'(감)이 없으면 재즈 뮤지션으로서 결격이다. 다른 한편, '스윙'은 재즈의 역사적 전개상 특수한 한 가지 장르나 양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스윙'은 '스윙재즈'나 '빅밴드 스윙'과 같이 1930년대에 유행한 재즈 양식을 일컫는데, 이 시기에 재즈는 가장 화려한 국제적 양식으로 발돋움한 동시에 가장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음악으로 폄하되었다.

후자의 '스윙재즈'가 비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댄스홀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반주음악으로 쓰였다는 점 때문이며, 나아가 그러한 기능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즈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즉흥연주를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20세기 이래 재즈에 대한 악담은 대부분 '스윙재즈'와 관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비판이론의 거장 아도르노의 악명 높은 '재즈 비판'도 특정하자면 '스윙재즈'에 대한 것이었다.

'스윙'이라는 용어가 이중적이듯 이날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도 양면성을 보여 주었다. 삶의 유희성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 리듬을 만끽하게 해 주는 한편, 시종일관 규칙적인 리듬에 음악과 동작이 맞추어져 있어서 신체의 주관적 자유로움이나 연출상의 서사성과 표현성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공연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바, 빼어난 연주력으로 북유럽 재즈의 수준을 과시한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라이브 연주 역시 대중적 스윙재즈 레퍼토리를 통한 춤 반주라는 기능성을 위해 그들만의 자율적 음악 세계를 상당 부분 양보해야 했다.

요컨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은 지역 순회공연 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대중적이고 규격화된 하나의 융합적 공연 포맷을 보여 주었다. 사회적·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볼 때, 1930년대의 '스윙재즈'는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 간전기(間戰期)에 전 지구적으로 전파된 대중적 쾌락주의, 그리고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관료체제화의 산물로 분석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에서 그와 유사한 맥락의 사회적 요구가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스윙재즈는 넓은 의미의 '스윙'을 도출했다. 스윙재즈 이후 즉흥연주가 강화된 감상용 재즈로서의 비밥과 '모던재즈'는 스윙재즈에 대한 의식적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무의식적 내면화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윙재즈는 동시대 유럽의 '집시재즈'나 남아메리카의 '라틴재즈'에서와 같은 로컬 다양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은 음악과 무용의 경계에서 그러한 스윙의 역사를 편견 없이 '클래식 전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21세기에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미완으로 그친 '코리언 스윙', 나아가 '광주 스윙'이 명명될 수 있을까?

꿈꾸는 2040

해석과 주장이 아닌 토론이 필요한 시대

이재웅
위민연구원 이사·광산청소년수련관장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흔히 현상만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주장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지역에서 최근 '성윤리 단원 수업'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가 성비위로 직위 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 즉 언론 보도와 SNS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교사가 성비위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프랑스 감독인 엘레노오 프리아트의 11분짜리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the Oppressed Majority)를 교육 교재로 활용하였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든, 영화를 설명하는 발언을 통해서든 학생 중 몇몇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발언 4~5가지이다.

이것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였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성희롱 및 성폭력 고발'로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지난 7월 24일 그 교사를 직위 해제하였다.

여성단체는 현재 학교 안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 측(시민모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피해자' 측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자기 성찰과 함께 이후 매뉴얼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모임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중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초의 민원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게는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일을 처리 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광주시 교육청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라고 비판하며 직위 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든 시민모임이든 '스쿨 미투'에 대해서는 모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성 평등한 학교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스쿨 미투로 대변되는 '성비위'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각자의 해석과 주장만이 아니라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문제는 이미 발생해 버린 이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가 교육 행정 측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이었으며 타당하였는가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하는 일을 매뉴얼과 경찰 조사로 상당 부분 떠넘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 사안이 성비위 문제 인가였다.

통상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범주가 아니라 성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과정 중 통념의 시각을 뒤집는(가부장주의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 가모장주의를 주제로 한 '억압당하는 다수')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정도였으며, 그 외 교사가 했다는 발언도 듣는 이가 맥락을 싹뚝 자르면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정도였다.

그러나 이 사안이 관련 교사의 수업 분리와 직위 해제로 결론이 나면서 도대체 왜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을 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해석과 주장만 난무하고 토론과 합의가 실종되는 세상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다. 잘못 되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용기, 광주시교육청에는 지금 그것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광주 지역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가 판을 만들고 여성단체, 교육단체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갈등을 줄이며 풀어 나갈 수 있는 해법 찾기와 성 평등한 학교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빠른 시일 내에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고

인공 지능 시장의 미래

김은희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인공 지능(AI)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계적인 바둑 대결로 인공 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조류를 흡수하려는 저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백 년에 걸쳐 고수들에 의해 개발된 바둑의 운영 전략이나 기술들이 AI의 창의적인 수에 전혀 힘을 못 쓰고 패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AI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AI의 적용 영역은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원래부터가 인공 지능은 단일 기술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융합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AI 기술이 다른 혁신 분야와 접목하면 AI의 활용 시장은 무한대로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 지능 기술이 광역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13억 중국인의 얼굴을 3초 만에 인식하는 얼굴 인식 기술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한 번역 기능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자체의 기술은 이미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의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뿐 만 아니라 사실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순도가 높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인공 지능 기술 개발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과제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발전 속도가 두렵기까지 하는 인공 지능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기존에 쉽게 예측하고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많은 세계적 난제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 쓰레기 처리, 식수와 농작물 공급·유통과 같은, 덩치가 커서 쉽게 예측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세계라 할 수 있는 우리 몸속 장기의 상호 기능, 하나의 질병만 하더라도 수 천 개의 방어 메커니즘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인체의 거대 시스템에 대한 해답은 몇몇 개인 연구의 업적만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인공 지능은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과 같은 다른 거대 시스템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가장 큰 가치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I의 진화의 속도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AI 분야에 필요한 석박사 전문 인력은 무려 45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AI의 발전 속도를 현재의 인적 자원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인공 지능 관련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머지 않은 미래에 폭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즉 기존의 관련 분야와 AI의 융합이 임계 시기에 이르면 분야간의 기술 융합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어, 인공 지능이 기존에 제시하던 예측과는 비할 수 없는 정확도와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향후 기업별, 산업별, 국가별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상용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AI 분야에서도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현실 문제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온라인, 모바일 기술이 잘 발달해 왔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산업부터 재빨리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인공 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공 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 사업' 이 확정되면서 향후 총 4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AI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자신의 직종이나 벤처 창업에서 어떻게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컴퓨터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AI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社 說

전당 내 하늘마당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은 최근 시민들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광주의 명소로 떠올랐다.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이어지면서 '도심 속 피크닉'을 만끽할 수 있는 예술과 젊음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주말만 되면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주말 저녁 광주일보 취재 팀이 찾아간 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맥(치킨+맥주) 등을 즐기고 있었다. 밤 아홉시가 넘어서자 주변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일부 이용객은 먹다 남은 음식 등 쓰레기를 가지고 갔지만, 대부분은 일회용 컵이나 피자 상자,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봉지에 담아 공원 한편에 버렸다.

문화전당 일대에서 주말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100 ℓ 짜리 종량제 봉투 40~50개 분량에 달한다. 평일에 15~20개가 수거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세 배나 된다. 특히 봄·가을 나들이 철이나 행사가 있을 땐 1t 이상 나오기도 한다.

전당 부지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당 측이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늘마당 이용객들이 인근 도로변이나 인도에 버리는 쓰레기다. 주말마다 수백㎏씩 배출되는 이들 쓰레기는 일단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동구청이 처리하고 있지만 발생 지점이 하늘마당이라는 점에서 처리 주체를 놓고 전당 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인 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이 주말이면 쓰레기 마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광주가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화전당과 동구 등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쓰레기는 스스로 되가져가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해 지자체 적극 나서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자체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계약자'로 지정해 사업 관리를 맡기는 방식인데, 기존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정 거래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공동도급 발주액은 2017년 444억 원(8건)에서 지난해 202억 원(3건)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영암군 역시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과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종합건설업체를 우선하는 오랜 도급 관행과 기초단체의 경우 친분과 인맥 등 지역주의도 저해 요인이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사발주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無等鼓

'당신들의 정의'

이청준 작가(1939~2008)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나환자들의 섬 소록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병원장으로 부임한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오마도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환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불신과 패배의식에 젖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소록도의 실질적 주인인 환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비단 소설 속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정치, 나아가 모든 삶의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일수록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저마다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천국'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중지하고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주장부터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강남 양파 조국'"이라는 조롱까지 홍수를 이룬다. 기득권층의 특혜로 박탈감을 느꼈던 이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을 떠올린다.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딸의 장학금 문제 등은 논란 자체만으로도 조 후보자가 사과하는 게 백번 타당하다.

그러나 '강남좌파'이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논리 어불성설이다.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은 수십 년간 권력을 누리며 불법, 탈법, 비리를 저질렀다.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 트랙 법안마저 팽개치고는 누구 하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반면, 우리 시대 부조리와 불의에 침묵하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좌파'로 활동하는 이들은 과연 대학 시절 꿈꿨던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이 세상에 천국이 없듯이 완벽한 정의도 없음을 보여 준다. 스스로가 정한 천국과 정의가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를 '내 안의 천국'이나 '선택적 정의'라고 부른다. 이 세상도, 우리도 완벽할 수 없음을 망각한 채, 완벽한 천국과 정의를 주장한다면 아귀다툼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 막히는 지옥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